



금주의 말씀

마15장21-28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간다. 비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흐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혈관의 피가 막히지 않고 잘 돌아야 건강하다. 먹는 음식이

잘 흡수되고 소화되어서 잘 배설되어야 건강하다.

은혜는 인생을 사는 동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이다. '은혜란 자력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태어난 것도 건강한 것도 이대로 은혜이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느냐가 행복의 척도이기도 하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일 것이다. 크게 교통 사고가 났는데 살아난 것도 은혜이다. 은혜를 많이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러곳에 보낸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 보호를 받고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갈 수가 있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한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음으로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거부가 되었다. 결국 롯과 결혼하여 오멜을 낳고 오멜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보아스와 결혼한 롯도 결국 모압 왕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

며 살고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은혜를 입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는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은혜를 구하여 은혜받은 여인의 이야기이다.

고후6: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145:8절) 여호와께는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흐르게 하라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계22: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하십니다.

예수님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였다.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여인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섰다. "주님 그 여

인이 뒤에서 부르짖고 있으니 좀 만나 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애원하였다. 예수님은 더욱더 상처 되는 말을 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주여 울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쯤 되자 예수님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칭찬하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로부터 여인의 딸이 온전하여 졌다.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므로 은혜가 내 삶에 흘러오게 해야 한다. 물꼬를 터야 물이 흘러들어온다. 물꼬를 트지 않고 눈에 물이 차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다. 여인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사모오를 보라. 주님을 밟고 싶어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주님께서 찾아 주신 것이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엘리사를 보라. 엘리사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결국 엘리사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믿음이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받는 채널이다.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안 되는 일이 될 것이며,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 끝으로 만짐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았고, 또 어느 백부장은 하인의 증종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선포해 달라고 부탁해서 고침 받았다.

외부필자의 일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복음을 펼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방인들도 사모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한 바울 시도는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선교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

그래서 헬라 지역이 아닌 지구의 반대편 서반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심지점을 로마로 설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로마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큰 도시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로마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를 거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홍기경 교수
· 한국침례교회 광주전남지부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일탈이 레위기 18장에 수록되어 있다.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적 타락이 다 들어 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러한 악한 행위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적 관행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악행은 성경에서 뿐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있었던 일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대 일본에도 동성애 관행이 있었다.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면서 동성애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퇴조하면서 성 해방 풍조가 유행하고 기독교의 성에 대한 윤리 도덕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다.

존 헨리 뉴먼(1801-1890)은 성공회 내에서 고등비평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고등 비평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파괴할 만능 용매(universal solvent)라 말했다. 존 헨리 뉴먼은, 고등 비평이 성경의 기적, 예언, 심지어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를 녹여버리고 해체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교들에서는 고등비평을 받아들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고등비평은 근거가 없는 추측으로 일관된 가설을 정설로 믿는 신앙 행위요, 종교적 행위이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존 듀이(1859-1952)는, 진화론은 가장 강력한 용매(most powerful solvent)로서, 전통적인 철학을 근본적으로 해체했다고 생각한다.

대니얼 데닛(1942-2024)은 현대의 저명한 철학자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지닌 사상적 파괴력과 근본적인 변혁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만능산(universal acid)이라는 비유로 표현한다. 데닛은 다윈의 사상이 전통적인 종교, 도

종교전쟁(9)

덕, 의미론적 개념들을 완전히 녹여 없앤다는 것이다. 본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니며, 상상에서 근거한 동화의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다. 물리학자 존 배로우에는 리처드 도킨스와 토론하면서, "리처드, 당신이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당신이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물학자일 뿐이니까요."

존 배로우의 말을 영어 원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You have a problem with these ideas, Richard, because you're not really a scientist. You're a biologist."

또한 줄리아 비블로-마틴은 배로우에게 있어 생물학이란 자연사(Natural History)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영어 원문:

Julia Vitullo-Martin notes that for Barrow biology is little more than a branch of natural history.)

위의 존 배로우의 말은 앤터니 플루의 《존재하는 신(There Is A God)》에서 인용한 것이다. 물리학자 배로우가 말한 바와 같이, 생물학은 과학이 아니라 자연사(Natural History)일 뿐이다. 말하자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뿐만 아니라, 생물학 자체도 물리학과 같은 과학이 아니다. 생물학은 생물을 분류하고, 그 역사를 기술하는 학문이다.

물론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과학이 아닌 부분이 있다.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빅뱅 이론은 과학이라 할 수 없다. 빅뱅 이론은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관찰 할 수도 실험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영어 science에 대한 번역어로서,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한 말로, 과학혁명 이전에는 지식, 체계적 지식, 숙달된 기술 등의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다. 지금도 영어 science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학문"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과학"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사실 한글질 심곡에서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실험, 관찰을 통하여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수학식으로 표현하고, 얻어진 수학적 식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물리학과 같은 학문 분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과학(social science),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과 같은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용어이다. 이런 경우는 과학보다는 학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과학 자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과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창조-진화 역사전쟁, 종교전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외부필자의 일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Missionary Publishing House (미션리) featuring a background of various flowers and plants. The central text reads: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We will create your life as a book). Below this, it lists various publications: '저서전 · 회고록 · 설교집, 교회사, 요람, 사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잡지 등 모든 출판물' (Books, memoirs, sermons, church history, cradle, sabbath, church newsletter, church directory, etc. all publications). At the bottom, it says '도서출판 미션리' (Missionary Publishing Ho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Publishing consultation: Jung Sun-hwa, Editor-in-Chief & General Manager, 010-4602-7825). On the right side, there are images of several books, including '30년사 1979-2009' (30th Anniversary 1979-2009) and '오직 은혜로다' (Only by Grace).